

‘안심 손목 밴드’ 차야 해수욕장 들어간다

전남 53곳 10일 일제히 개장 발열 체크·거리두기 시행 15곳은 ‘예약제’ 이용객 분산 지역상권 위해 고심끝 개장

코로나 19사태가 울어올 전남지역 해수욕장 문화를 바꿀 기세다. 전남지역 모든 해수욕장에서는 입장 전 발열 체크를 거쳐 ‘안심 손목 밴드’〈사진〉를 피서객에게 교부하고,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해수욕장 사전예약제’가 도입된다. 사람 뿐 아니라 해수욕장에 설치된 파라솔(parasol)도 2m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



무안 홀통·툰머리 해수욕장을 제외한 도내 53개 해수욕장이 코로나 19 비상 상황에서도 문을 열기로 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19 때문이다. 코로나 19 때문에 해외여행이 닫혀있어 국외로 빠져나갈 수 없는 시민들을 품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보탬을 주기 위한 것이다. 다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된다. 입장 전 발열 체크와 2m 거리 준수·안심 손목 밴드 배부, 사전예약제 등이다. 입장 전 안전요원 또는 방역관계자가 피서객을 일일이 발열 체크 한다. 발열 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 해 입장이 허용되며, 입장객에게는 무료 물놀이장 입장 표식과 유사한 손목밴드를 지급한다. 손목밴드에는 ‘해양수산부·안심 해수욕장, 개인간 거리 2m 준수, 전남도 00사·군’이라는 글

자가격리지에 전달할 방역키트. 코로나 19 확산으로 광주 북구지역 자가격리 대상자가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7일 오전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 자가격리자 관리센터에서 직원들이 자가격리자들에게 전달할 체온계와 마스크, 손세정제 등이 담긴 방역키트를 정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자가격리지에 전달할 방역키트. 코로나 19 확산으로 광주 북구지역 자가격리 대상자가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7일 오전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 자가격리자 관리센터에서 직원들이 자가격리자들에게 전달할 체온계와 마스크, 손세정제 등이 담긴 방역키트를 정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운동부 운영학교 인권교육 실태 집중 점검

광주·전남교육청 폭력 예방·인권 보호 선제조치

광주·전남교육청이 지역 내 모든 학교 운동부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선제조치에 나섰다. 7일 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운동부 인권교육 실태 점검 점검은 감독과 팀타터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 받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철인3종 고(故) 최수현 선수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다. 시 교육청은 오는 24일까지 모든 초·중·고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133교를 대상으로 운동부 인권교육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시 교육청은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대면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스포츠 인권교육, 학교운동부 현장 컨설팅 등 온라인 교육과 운동부 관계자 현장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또 오는 8월부터는 ‘학교운동부(성)폭

력 제로(Zero)를 통한 인권 감수성 함양’을 목표로 20명 내외의 소규모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인권집행 사례 유형에 따른 대응방법, 역할극 체험 등 학생선수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학생선수(성)폭력 및 인권 교육 실시 여부, 학생선수 훈련 환경 여건, 기숙사 생활환경 등을 파악하고 학생선수에 대한(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지도자 면담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도 교육청 체육교육센터에서 권역별 지도자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 교육청은 전남도 내 학교운동부 합숙소 운영을 단계적으로 폐지했고, 현재 운영 중인 5개교에 대해서는 오는 30일까지 완전 폐쇄토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자가격리지에 전달할 방역키트. 코로나 19 확산으로 광주 북구지역 자가격리 대상자가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7일 오전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 자가격리자 관리센터에서 직원들이 자가격리자들에게 전달할 체온계와 마스크, 손세정제 등이 담긴 방역키트를 정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 북구, 소상공인 40개 업체 경영환경 개선 지원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7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기간인 3월과 4월의 평균 매출이 25%이상 감소한 소

상공인 40개 업체가 대상이다. 창업 6개월 이하인 사업자 20개 업체에는 최대 100만원, 창업 6개월 이상 사업자 20개 업체에는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한다. 북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오는 24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

전남교육청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나서

교사 47명 제작 지원단 구성

전남교육청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교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에 본격 나섰다. 7일 전남교육청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학생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강화하고 과목별 특성을 살리는 중·고등학교 원격수업 콘텐츠 100개 과목을 제작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원격수업이 면대면 수업의 장점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콘텐츠를 제작·보급하며, 등교수업 중에도 주말이나, 방과후, 방학기간에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수업을 적극 도입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뒤늦은 등교개학 이후 기존 원격수업 시범학교 60개교를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수업 선도학교’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현장의 교사 47명으로 ‘블렌디드수업 지원단’을 구성해 전남 학교에 맞는 전남형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에 나섰다. 이들이 만드는 100개 과목 400차시 분량의 원격수업 콘텐츠는 ‘전남교실ON.com’에 탑재해 교육현장의 교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시민단체 오늘 장휘국 교육감 고발

지역 교육 시민단체가 교육감 부인의 명절 선물을 수수와 인척의 특혜 인사 교류 등과 관련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고발을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을 비롯한 교육 시민단체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각종 의혹에 휩싸인 장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으로 8일 광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장 교육감은 재임기간 내

내 청렴을 내세워 왔으며, 공직사회가 청렴한 사회가 되도록 모범이 돼야 함에도 장 교육감은 최근 인척 특혜 인사교류와 배우자 금품수수, 불법선거 운동 의혹으로 광주 교육 관련 시민단체·노동조합, 정당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어 수사기관이 철저히 조사해 진위를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청렴을 내세운 장 교육감이 광주교육의 위상과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과학고 3주간 기숙사 학생 귀가 중지

광주과학고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우려와 관련해 앞으로 3주간 학생들의 귀가를 중지한다. 7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과학고에 따르면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기숙학교인 광주과학고는 오는 24일까지 전교생의 귀가를 중지하기로 했다. 광주과학고는 보통 2주 단위로 학생들을 금요일 오후 귀가시켰다가 일요일 저녁 귀교하도록 해왔다. 지난 5일 귀교한 학생들의 외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광주과학고 관계자는 “여러 지역 출신 학생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3주간 귀가를

중지하고 외출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광주과학고와 같은 기숙학교인 광주체육고와 광주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광주 자동차설비공고에 대해서는 오는 15일까지 전교생 3분의 2 등교 원칙을 적용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과학고를 제외한 기숙학교들은 지역 단위 모집에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시중 판매 청바지서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청바지에서 유해물질인 아릴아민과 니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시판 중인 청바지 30개(성인용 15개, 아동용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됐다”고 밝혔다. 성인용 청바지 1개 제품(위드진) 옷감

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된 아릴아민이 기준치인 30mg/kg을 최대 2.7배 초과하는 80.4mg/kg이 검출됐으며 성인용 2개 제품(ESN, MODIFIED)과 아동용 1개 제품(Wittyboy) 스냅 단추에서는 피부 접촉 시 부종·발진·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기준치의 최대 6.2배 초과 검출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